

몬테소리 아동관에 대한 개혁주의적 고찰

이정규(충신대 기독교유아교육 박사과정)(대학원 2-5)

논문초록

본 논문은 개혁신앙의 기독교 세계관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관점에서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인간론적인 고찰을 통하여 몬테소리 교육사상과 그녀의 신앙, 유아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몬테소리 아동관에 대하여 분석 고찰한 논문이다. 개혁주의 세계관에 근거한 인간론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함 받았으며,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몬테소리는 유아 내면에서 약동하는 생명력을 관찰하고 생명의 발현을 위한 교육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교육학적 전개는 몬테소리 가톨릭 신앙과 유아를 통한 직접적인 관찰과 경험을 통하여 아동관의 정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몬테소리의 아동관은 하나님 형상의 구조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며 생명의 발현을 위한 교육도 그녀의 이러한 아동관에 영향 받고 있다. 그러나 몬테소리가 발견한 하나님 형상의 구조적인 부분과는 달리 몬테소리 아동관은 방향성과 형상의 왜곡을 간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형상 회복에 대한 구속적인 관점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몬테소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한 복음에 대한 인식이 기독교 몬테소리 교육 사상을 통하여 정립되고 복음에 대한 몬테소리 교육 방법론적인 소개와 제시가 있어야 한다.

주제어: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형상, 몬테소리, 아동관

I 서론

마리아 몬테소리(Maria Montessori 1870~1952)는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의학박사로 의사에서 시작하여 교육학적 전환을 이루어 세계 유아교육계에 큰 영향 준 사람이다. 그녀는 정신지체아를 치료하는 중에 과학적 관찰을 통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학적 치료가 아닌 교육학적 제시가 필요하고 적절한 환경적 도움이 주어진다면 유아는 스스로 성장한다는 것을 발견하여 전 세계 교육계에 큰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1907년에 로마의 산로렌조(San-Lorenzo)에 최초의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그녀가 발견한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교육학적인 방법론을 정상 아동들에게 적용하였고 거기서 몬테소리 교육의 탁월성이 입증되었다. 몬테소리는 유아들을 과학적으로 관찰하여 유아의 성향과 특성을 발견하여 이론화하였고 독특한 교육 사상을 정립하였다. 민감기, 흡수정신, 정상화, 준비된 환경, 과학적이고 감각적인 교구체계가 그것이다. 이러한 몬테소리 교육은 전 세계에 알려졌고 보급되어졌는데 1907년에 첫 어린이집이 개원한 이래 약 100여년의 세월이 지났고 2007년에는 이탈리아에서 몬테소리 교육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렸으며, 한국에서도 약 3000명의 몬테소리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국제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몬테소리 교육의 시사점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명미, 2009). 한국에서 몬테소리 교육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40년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고 실행되어졌다.

이명미(2009)의 몬테소리 교육에 대한 연구동향을 보면 2008년까지 몬테소리 교육에 대하여 한국에서 출판된 단행본이 161편, 학위논문이 183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이 238편으로 몬테소리 이론과 방법에 대하여 연구되었지만 몬테소리 교육방법 연구주체의 협소성과 다양한 맥락에서의 통합적 연구의 결여를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양정님(2004)의 몬테소리 교육사상의 연구동향 분석에서 교육철학의 연구와 몬테소리가 직접 쓴 문헌 번역의 부족, 국내에서 몬테소리 교육 전문연구자의 부족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양적인 연구와 질적 연구를 비교해 볼 때 질적 연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몬테소리 교육철학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양적연구의 급속한 성장은 몬테소리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몬테소리의 아동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녀의 가톨릭 신앙과 종교는 큰 영향을 주었지만, 그녀의 교육 사상을 다룬 저작들과 연구논문들은 대부분 일반 교육에 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어서 통합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정희영, 2002). 몬테

소리 교육을 가톨릭 입장에서 유아 신앙교육에 접목한 연구(조성자, 2009; 최영희, 2004), 영국 성공회 소속의 Jerome W. Berryman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Godly Play에서 몬테소리 신앙교육을 어린이 영성과 유아교육에 접목하여 교육철학과 방법론을 연구(이초혜, 2010; 김영미, 2010; 유선희, 2009; 원필선, 2009; 김정미, 2008)한 것과 개혁신학과 세계관에 근거해 몬테소리 교육 사상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을 한 연구(정희영, 2002; 차성욱, 2003)가 몬테소리 교육방법을 통한 신앙 교육을 접근한 연구들이다. 국내에서 연구되어진 몬테소리 교육을 보면 몬테소리 일반교육영역과 신앙교육 영역을 분리하여 다루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몬테소리의 교육적 배경이 다양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이원론적인 교육학적 딜레마에 빠져있는 모습이라 하겠다.

이러한 몬테소리 교육에 대하여 개혁주의 신앙과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몬테소리 교육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개혁주의 세계관으로 몬테소리 교육을 고찰하는 것은 기독교 유아교육에 대한 틀을 정립하고 성경적으로 유아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개혁신앙과 세계관에 입각한 인간론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인간론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인간론적인 관점과 아동관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3장에서는 몬테소리 교육사상과 종교적 관점, 몬테소리가 아동들에 대한 관찰과 경험 속에서 형성된 아동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다루고, 4장에서는 개혁 주의적 입장에서 몬테소리 교육의 아동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비판, 고찰을 통하여 기독교적 관점에서 몬테소리 아동관을 이해하고 기독교 유아교육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제시와 결론적으로 몬테소리 교육 사상을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논하고 제언 하려고 한다.

II 개혁주의의 세계관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론적 아동관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로 시작하고 있다(창세기 1:1). 성경은 말씀 선포를 통하여 창조에 대한 것을 계시한다. 이것은 개혁주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 주권에 대한 사상을 나타내 준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신 능력과 지혜로 창조되었으며 섭리로 보존하시고 운행하신다. 또한 개혁주의 사상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타락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 남용으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부패되었으나 하나님의 질서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세계의 질서 안에 진, 선, 미의 파편적인 부분이 남아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김영환, 2006). 개혁주의 세계관의 큰 틀 중에 하나는 창조, 타락,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견해이다. Wolters와 Goheen(2005)은 이것을 구조와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다루고 있다.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구조는 없어지거나 변화하지 않지만 방향성은 왜곡되어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세계에 혼란과 혼동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개혁주의적 세계관을 통하여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아동관을 다룰 때에도 이러한 구속사적인 틀(창조, 타락, 구속)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1. 하나님 형상에 대한 개념 정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개혁주의 인간론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창세기1:26-27). 창세기1:26절에서 쓰인 “형상”(image)는 히브리어로 첼렘이며 “모양”(likeness)은 데무쓰로 의미적으로 차이는 없다. 첼렘은 “찌르다” “베다”라는 동사로부터 유래된 단어로 동물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조각되는 광경을 보여주는 단어이고, 데무쓰는 “~와 비슷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다. 결국 두 단어는 비슷한 모양이라는 뜻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두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진 존재이고 대표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Anthony A. Hoekema, 1990). 하나님 형상의 구성 요소 대한 개혁주의적 견해는 영혼의 불멸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성과 의지,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에 대한 인간 본성의 도덕성, 불멸성을 공유하는 영혼의 적절한 기관으로서의 인간의 몸, 땅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포함되어 있다(Louis Berkhof, 1992). 칼빈은 하나님 형상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주로 영혼과 능력들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인간의 모든 부분 즉, 신체까지도 하나님 형상의 광채로 빛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 속에 자연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원시적 의로움 즉, 지식과 의로움, 거룩을 포함시키고 있다(Robert L. Reymond, 1998). 서철원(2010)은 신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말하면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반사하고 지성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탐구하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자기결정으로 행하며 인간의 육체는 영혼과 결합하여 완전한 통일된 인격체를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James W. Sire(2004)는 인간이 하나님 형상 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유사

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성품을 지니셨기에 인간도 성품이 있고, 자기 초월성, 지성, 도덕성, 사회성, 창조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하나님 형상에 대한 개념은 성경적 인간론을 다루는데 근거를 이루며 여기에서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아동관이 기초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2. 구속사적(창조, 타락, 구속) 관점에서의 개혁주의 인간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일곱 군데에서 창조세계의 선함을 말씀하시고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세기1:31).” 범죄 이전의 창조세계는 선하게 창조되었다(Albert M. Wolters, Micheal W. Goheen, 2005). 또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타락하기 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은 의와 거룩한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이 최고의 상태에 도달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순종을 통하여 더 높은 수준의 완전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한다(Louis Berkhof, 1992).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의로움을 부여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름 받은 것이다. 또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적 모습은 관계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이웃에 대한 공의,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능력도 부여받았다(Robert L. Reymond, 1998). 칼빈은 타락하기 전의 하나님 형상은 순수한 마음과 정신의 빛 안에서 모든 선함에 탁월하였고 참된 지식, 거룩함, 의로움을 포함하여 믿음,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성결과 의로움을 향한 열정 등이 있었다고 말한다(Anthony A. Hoekema, 1990). 창조 때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비추거나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문화 창조에 대한 소명을 행하는 활동적인 것이었다(Albert E. Greene Jr, 1998). 이승구(2009)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원형(archetype)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반영(reflection, image)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의 전 존재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타락 전에 인간이 가진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인간론적 관점은 선한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영하고 문화를 통한 창조적 능력을 행하는 조화로운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혁주의의 타락하기 전의 인간론적인 관점은 유아와 아동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유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화 창조적인 능력을 행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 형상적인 능력이 유아에게 존재하여 피조세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발견하는 인간론적인 모든 것이 왜곡된 혼란과 악이 팽배한 것처럼 보인다. 성경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에 고통과 악이 들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창세기 3장). Wolters와 Goheen(2005)은 타락의 범위는 창조세계 전체에 미쳤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오용되고 왜곡되었으며 죄 된 목적으로 착취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으로 인한 왜곡은 선한 창조의 구조를 말살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에 대한 왜곡으로 드러났다고 말한다. 즉, 창조의 선한구조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James W. Sire(2004)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지만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여도 타락 이후에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유경상, 2010). 이승구(2009)는 타락의 영향이 컸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왜곡되고 뒤틀린 하나님 형상이 되었다고 말한다. Hoekema(1990)는 개혁주의 인간론을 다루는 책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한 인간 안에 남아 있는 자취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자취를 하나님 형상의 흔적(lineaments) 혹은 잔여물(remnant)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한다. 인간 타락 이후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간론은 모든 부분에서의 타락과 오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형상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은 방향성은 왜곡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거나 없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간론은 개혁주의 아동관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아와 아동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 형상이 오염되고 방향성의 왜곡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지만 형상적인 부분이 없어지지도 않았고 파괴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발달과 생명론적인 측면에서 구조와 방향성, 하나님 형상과 왜곡이 유아와 아동에게 동시에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유아들은 하나님 형상의 구조적인 부분과 왜곡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발달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으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현재의 교육과 경험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개혁주의의 구속사적인 세계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타락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고 구속은 바른 방향으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개혁주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된다고 말한다(Hoekema, 1990).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고후 5:17-18), 아담이 깨뜨린 언약과 창조의 본래

목적으로의 회복이고 재창조이다(신국원, 2010: 139). 유경상(2010)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도록 만드는 준비이고 하나님 형상의 본분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든다고 말한다. 송인규(2009)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화목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는 피조물, 자연, 문화, 사회등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화목을 강조하고 있다. 이승구(2009)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성령께서 적용시킴으로 하나님 형상 회복이 일어나며 개혁된 형상(reformed image)으로 변화된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은 새롭게 함(renewal)을 의미하며 회복으로의 구원이고 그 범위는 창조세계 전체 즉, 우주적이고 최후적 승리를 보장한다(Albert M. Wolters, Micheal W. Goheen, 2005). 그러므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인간론적인 하나님 형상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속으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한 중생의 역사로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 형상은 회복된다(요한복음3:5-8). 이러한 관점은 아동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유아와 아동에 대한 하나님 형상 회복에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개인적 적용 즉, 중생을 통한 새롭게 함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유아와 아동에게도 중생의 역사가 필요하며 이것이 하나님 형상 회복에 대한 중요한 준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III 몬테소리의 인간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관

몬테소리 인간론에 대한 이해는 그녀의 교육학적인 관점과 신앙, 그녀가 어린이를 통하여 관찰한 경험, 직관적인 이해를 통하여 서서히 형성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몬테소리의 교육학적 인간론에 대한 연구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된 몬테소리의 생애를 알아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몬테소리 인간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몬테소리가 관찰을 통하여 유아에게서 발견한 유아의 특성과 관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 몬테소리는 산 로렌조에 어린이집(Casa dei Bambini)을 개설하고 유아를 과학적으로 관찰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였다. 유아들을 통하여 발견한 흡수정신과 민감기, 정상화의 개념과 정신적 태아에 대한 관점은 몬테소리의 독특한 아동관을 형성시켰다. 몬테소리에게 정신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가톨릭 신앙도 그녀의 신관과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아동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으며, 몬테소리가 소명으로 생각했던 독특한 유아에 대한 만남과 경험은 몬테소리의 아동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몬테소리의 아동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몬테소리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동관

아동을 직접 관찰하여 아동관을 세운 몬테소리는 이론적이고 사색적인 관점에서 아동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아동을 관찰하는 가운데 인간론적인 아동관을 정립하였다. 몬테소리는 산 로렌조에 최초의 어린이집을 개설하고 그곳에서 유아들을 과학적으로 관찰한 결과 유아들은 집중력과 반복에 대한 흥미, 질서감, 선택의 자유와 작업에 대한 선호도, 상벌을 원하지 않는 자발적인 거절,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감각과 자발적인 자기 훈련에 임할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신화식, 2007: 25). 몬테소리는 관찰을 통하여 아동관과 인간론을 정립한 것이다. 몬테소리는 어린이집에서 관찰을 통하여 발견한 유아의 특징과 성향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여 인간발달 초기의 독특한 아동관을 가지게 되었고, 몬테소리의 아동관은 정신적 태아, 흡수정신, 민감기의 발달,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1) 정신적 태아

몬테소리는 유아를 육체와 정신이 상호작용하는 통합된 존재로 보고 생물학적인 세포분열을 통한 육체의 발달뿐만 아니라 무한한 지적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영적 태아(Spiritual embryo)로 인식하여 생물학적 태아, 정신적인 태아에 대하여 말한다(조옥희, 권영자, 2001: 61).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태어나고 세포분열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설계도에 따라 각 구성 요소를 이루게 되고 알맞은 자리가 배당된다고 몬테소리는 말하면서 정신적인 태아도 육체의 성숙과 발달의 과정 안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적 성숙과 발달을 이루어 간다고 말한다. 몬테소리는 유아의 발달과 성숙은 유아가 본성적으로 타고난 설계도에 따라서 육체적 심리적으로 발달하며 적절한 환경과의 작용들을 통하여 통합된 한 인간으로 성숙한다고 말한다(Sigurd Hebenstreit, 2004: p209-211). 정신적 태아라는 관점에서 몬테소리의 아동관은 유아의 성숙과 발달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의 진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적인 관점에서의 성숙과 발달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육체적, 정신적 태아에 대한 관점은 無에서 有로의 태어남과 동시에 생명의 성숙과 발달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과정을 따른다는 설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창조론에서 창조주께서 온 우주를 지적이며 질서 있게 계획한 청사진에 따라 운행한

다고 말하고 있는 지적설계 운동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흡수정신

흡수정신은 몬테소리가 유아를 관찰한 가운데서 발견한 유아의 정신으로 몬테소리는 유아의 정신을 ‘흡수정신(absorbent mind)’라고 정의를 내렸다(신화식, 2006: 78). 흡수정신은 유아의 능동적인 정신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유아 스스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받은 인상들을 의식,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한다. 유아들은 이렇게 받아들인 인상과 이미지를 통하여 자신의 인성을 만들어 간다. 유아들은 흡수정신을 통하여 다양한 감각 인상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의식적인 이해는 그러한 이미지나 인상들을 수단으로 의식을 확장시킨다(Sigurd Hebenstreit, 2005: 220). 이러한 흡수정신은 6세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한다고 몬테소리는 보았으며 무의식적인 단계와 의식적인 단계로 구분하였다. 무의식적인 흡수정신은 0~3세 동안에 나타나며 무의식적으로 주변 환경들의 인상들을 흡수하여 먼저 받아들인 인상들과의 통합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무의식적 흡수정신의 시기에는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인 유아의 반사와 모방, 조작적 놀이를 통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의식과 정신을 조직화하고 형성시켜 나간다(신화식, 2006: 79). 의식적 흡수단계인 3~6세에는 유아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발달과 흥미에 알맞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적 인상을 심화하고 경험의 반복을 통하여 자신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단계를 말한다. 의식적인 흡수정신의 단계에서는 질서 있는 환경과 유아 스스로의 선택적이고 계획 있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지가 강하게 되고 감각기관을 세련화 시킬 수 있는 교육적으로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조옥희, 권영자, 2001: 60). 흡수정신을 통해 본 몬테소리의 아동관은 유아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인성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유아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형성시켜 나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몬테소리는 흡수정신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

3) 민감기

몬테소리는 유아의 발달 단계는 특별한 자극에 대하여 민감한 충동성과 감수성을 갖는 독특한 시기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시기를 몬테소리는 민감기(sensitive period)라는 용어로 설명하는데 민감기는 변화이론(Mutation Theory)으로 알려진 네

덜란드 생물학자 휴고 드브리스(Hugo De Vries)가 나비의 유충을 연구하면서 유충이 빛에 민감성을 가지는 것을 명명한 ‘민감성’이란 용어를 몬테소리는 유아의 발달 과정에 적용하여 사용한 단어이다(조옥희, 권영자, 2001: 82). 몬테소리는 0~6세 유아에게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습득하거나 배우기 위하여 내적인 흥미와 충동이 특정 자극과 환경에 대하여 발화하여 유아가 깊은 집중과 반복을 통하여 질 높은 상호작용적 관계로 들어가는 특별한 시기가 있고, 이러한 민감기의 시기는 무한한 시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성향이 획득되었을 때 약화되거나 사라지고 다른 성질의 민감기가 찾아온다. 몬테소리는 흡수정신, 언어, 근육발달, 작업, 질서, 감각, 촉각, 미각, 후각, 쓰기, 작은 사물, 예의, 읽기, 운동의 민감기가 나타나는 시기와 지속기간은 다르다고 말한다. 몬테소리는 유아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과 관찰, 경험을 통하여 민감기를 관찰하였고 특별한 특성을 획득한 후에 민감기는 소멸되는 일시적인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신화식, 2003: 40). 민감기를 통해 본 몬테소리 아동관은 유아의 시기에 발달의 단계가 기계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을 이끄는 내부 생명의 발현이 외부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발달을 이루어가는 과정적인 아동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몬테소리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드브리스가 과학적인 관찰을 통하여 곤충에게서 발견한 민감기적 요소를 유아기의 발달에 적용함으로써 생물학적 발달관을 통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정상화

정상화는 몬테소리 교육 과정을 통하여 유아가 본연의 발달과정을 따르는 현상으로 유아가 민감기의 흡수정신을 통하여 환경과의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하는 현상으로 작업에 흥미를 가지고 집중,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내적 훈련과 목적 지향적인 발달과업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신화식, 2003: 55). 이러한 정상화는 민감기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감수성, 환경에 대한 인상과 인지를 받아들이는 흡수정신, 몬테소리의 준비된 환경의 교구를 통한 흥미로운 반복적인 작업을 통하여 유아 내면의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유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준비된 환경’을 통하여 정상화는 촉진된다(조옥희, 권영자, 2001: 87). Standing(1962)은 정상화의 결과로 유아들은 내적인 기쁨과 행복감, 유아의 주변 환경과 작업에 대한 사랑, 현실에 대한 애착과 자율적인 순종, 독립성과 주도성, 자발적인 자기 훈육과 인격의 순화가 일어난다고 말하면서 정상화에 도달한 인간은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생활하는 인격체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정상화는 교육을 통하여 바르게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아가 내적인 본성과 일상생활, 준비된 환경 속에서 최대한의 발달적 성숙을 이끌어가는 것이다(조성자, 2006). 몬테소리는 정상화에 대한 관점을 통한 유아교육은 유아가 태어나면서 환경과의 정상적이고 발달적인 상호작용의 결여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달에서 일탈된 상태를 준비된 환경을 통하여 정상화된 유아로 이끌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하고 있다. 몬테소리는 일탈의 상태에서 정상화의 상태로 유아의 내적인 생명을 이끄는 것이 교육이라 보고 준비된 환경과 교구체계를 개발하였다. 정상화의 관점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몬테소리 아동관은 유아 내면에 본래적으로 완전을 향한 발달과 성숙의 씨앗이 있음을 보여주는 아동관을 가지고 있으며, 준비된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유아의 집중을 유발하고 반복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유아의 인격과 성품이 순화되고 정화되어 유아들이 평화롭고 조화된 정신생활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박경희·이성숙, 2011).

2. 가톨릭 신앙과 몬테소리 아동관

몬테소리는 이탈리아의 가톨릭적인 배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몬테소리가 의과대학을 들어갈 때에도 교황의 도움을 얻어서 허가를 받았다(신화식, 2006: 14). 몬테소리의 가톨릭 신앙은 그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깊어졌고, 이러한 종교적 신앙은 그녀의 교육사상과 신관, 아동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몬테소리는 유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종교적인 잠재능력과 자유의지, 지혜를 부여받아 유아의 본성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고 유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몬테소리는 교육을 유아의 내부에 하나님이 부여한 잠재능력을 유아 스스로 자기 활동을 통하여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김영미, 2009). 1930년에 쓰여진 ‘교회 안의 어린이’는 몬테소리의 교육적 방법을 가톨릭 어린이 신앙교육에 접목하기 위하여 신앙교육의 방법을 다양한 교구체계로 전환하여 유아에게 제시하는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신화식, 2007: 21). 몬테소리는 하나님은 유아를 사랑하고 창조세계에 우주적인 질서와 법칙을 부여하시는 분이며, 지상의 모든 존재는 창조의 대행자로 우주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는 우주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조옥희, 권영자, 2001: 39). 몬테소리는 어린이집 내부에 유아들의 가톨릭 신앙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한 장소를 구분하여 “Atrium”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Atrium”은 초대 교회의 입구와 성소 사이에서 정결의식을 행하던 장소를 의미하는 곳으로 성찬에 참여하며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장소를 말한다(Gianna Gobbi, 2000: 4). 이러한 몬테소리의 가톨릭 신앙은 유아들이 몬테소리 교육을 통하여 일탈에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 대한 몬테소리의 이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은 유아들은 영세에 의해 중생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믿음보다는 주입된 은혜에 의한 부여된 사랑을 통해서만 칭의를 얻는다고 보고 있다(Louis Berkhof, 1992). 몬테소리는 유아가 영세를 받았고 몬테소리 교육을 통하여 일탈에서 정상화가 되어 진다면 그 유아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Atrium'에서 가톨릭 종교교육을 할 때에도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교리문답을 통한 성례의식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몬테소리의 가톨릭 신앙은 몬테소리가 유아를 바라보는 인간론적인 관점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3. 생명의 발현에 대한 몬테소리 아동관

몬테소리가 유아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은 의과대학 시절이었다. 이탈리아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의과대학에 들어간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아버지와 학생들의 적대감, 반여성주의적인 교수들의 편견으로 의과대학을 포기하려는 때 몬테소리는 어린이에 대한 소명감을 깨닫는 경험을 한다. 핀시오(Pincio) 공원을 산책할 때 거지 모녀를 만나는데 구걸하는 어머니나 자신의 모습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색종이를 가지고 놀이에 집중하는 2세 정도의 여자아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평온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몬테소리는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유아 내면에서 약동하는 무엇을 느끼고 다시 해부실로 돌아갈 수 있었다(신화식, 2006: 15). 그녀는 이 때부터 해부실습에 대한 혐오감은 사라지고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Kramer, 1988: 44). 몬테소리는 유아와의 만남을 통하여 유아 내부에서 약동하는 무엇을 느꼈고 그것이 그녀가 유아를 향한 소명적인 삶과 사역, 아동관 형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몬테소리가 유아의 내부에서 느끼고 보았던 것의 영향력은 몬테소리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몬테소리가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또 다른 계기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로마대학교(Univercity of Rome) 정신과 임상진료소에 조의사로 임명되어 임상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정인지체장애 수용소를 방문하던 때였다. 그곳에서 장애 어린이들이 빵을 가지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관찰하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먹는 것 보다는 다른 종류의 깊은 갈망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그들이 지적 능력을 향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교구체계를 통한 교육방법을 구상하였다.

몬테소리에게 그 사건은 정인지체 아동의 문제를 의학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교육학적 문제로 보는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신화식, 2007). 이러한 몬테소리의 장애 아동에 대한 경험은 비록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장애 유아 내부에는 지적인 욕구를 위한 갈망이나 생명력이 있음을 보았고 이러한 현상은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방법론은 유아 내부의 지적인 욕구와 생명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확장시킨 계기가 되었고 몬테소리의 아동관이 형성되는데 지속적인 영향력을 주었다.

산 로렌조에 이탈리아 정부가 재건축을 결정하고 추진하여 이곳의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방치됨으로 아이들이 건물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때는 몬테소리가 장애아 교육으로 기적을 이룬 교육자로 알려지던 때였다. 몬테소리는 장애아와 가졌던 교육적 경험을 정상아들에게 시도해보려는 기회 갖기를 원했고, 몬테소리에게 산 로렌조의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을 때, 가족과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상아를 위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다(박경희·이성숙, 2011: 19). 1907년에 산 로렌조에 정상아를 위하여 최초의 어린이집이 개설되었고 이곳에서 몬테소리는 자신의 교육학적 경험을 적용하여 유아들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몬테소리는 그녀 자신의 교육적 기초를 형성해 나갔고 기존의 교육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유아의 관찰을 통해 교육 방법론과 유아들의 성향과 특성, 유아 중심의 준비된 환경에 대한 구성 등 독특한 교육법이 탄생하였다(이선옥, 2008: 15). 몬테소리의 아동관은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직접적이고 자연스런 상황에서의 유아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몬테소리가 발견한 유아에 대한 독특한 성향과 특성, 가톨릭적 신앙 배경, 유아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경험은 몬테소리의 아동관이 통합적으로 인식하여 생명론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가지도록 했다. 몬테소리는 죽기 2년전 “인간 형성에 대하여”라는 저서에서 자신의 교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생명의 양식인 교육,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돕는 교육이라고 말한다(서석남, 1998: 13). 몬테소리는 유아 본연의 생명력을 발견하였고 유아의 생명 발현을 위한 교육을 전개했고 유아를 생명으로 인식하는 아동관을 가지고 있었다.

IV 몬테소리 아동관에 대한 개혁주의 세계관적 고찰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현실은 개혁주의적 세계관으로 보면 복합적이다.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유아가 성장과 발달을 하는 가운데에도 나타

나고 있다. 몬테소리의 발견의 교육은 핀치오에서, 장애유아에 대한 관찰 속에서, 산 로렌조에서의 정상아에 적용한 교육방법과 관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형상의 편린과 구조와 방향성에 대한 부분, 하나님 형상 왜곡에 대한 영역에서 몬테소리는 하나님 형상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교육은 생명의 발현을 위한 것으로 말한다(서석남, 1998: 14). 개혁주의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몬테소리가 발견한 아동에 대한 생명론적인 관점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형상의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몬테소리는 이러한 유아의 하나님 형상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구조적 확장을 위한 교육으로 방법론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몬테소리는 이러한 하나님 형상에 대한 부분을 유아의 생명으로 인식했고 생명 발현을 위한 교육을 전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몬테소리의 하나님 형상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인 생명에 대한 인식에서 간과된 것은 방향성, 왜곡, 형상에 대한 부패와 오염이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몬테소리 아동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가톨릭시즘의 신앙적 배경이 가져온 부정적인 부분이다. 개혁주의 세계관은 하나님 형상의 구조적인 부분은 남아있지만 방향성에 대한 영역은 왜곡되어 있고, 원형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하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형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반사하지 못함으로 “표적을 빗나간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M. Fakkema, 1982: 74-75).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인격적 재능과 생물학적 기능의 상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적 생명의 상실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 당시의 실험심리학, 신교육운동이 몬테소리 교육이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코메니우스, 로크, 루소, 페스탈로치, 프뢰벨로 이어지는 아동중심, 자연주의 교육학자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교육사상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박경희·이성숙, 2011: 29). 또한 몬테소리는 가톨릭 신앙의 영향으로 어린이가 원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른들은 어린이가 선을 향하도록 유아의 근원적인 마음을 강하게 하고 위험이 어린이에게서 멀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린이의 본성은 신을 향하고 있으므로 그 본성의 발달을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이선옥, 2008: 26). 이러한 관점은 몬테소리가 생각한 정상화된 어린이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상화된 어린이들은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한다고 몬테소리는 말한다. 몬테소리의 가톨릭적인 구원관이 신앙적 배경에 있다면 정상화된 유아는 충분히 구원된 삶의 모습을 가진다고 보았을 것이다.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구속과 구원은 인격적인 정화나 행위를 통하여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복음을 성령 하나님의 증생케 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요한복음3:5-18). 이러한 구원과 구속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개혁주의 세계관은 말한다(Albert M. Wolters, Micheal W. Goheen, 2005: 116-120).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어린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새 생명을 받을 때 어린이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위한 영적인 성숙과 인격적인 발달을 이룬다고 본다. 몬테소리는 하나님 형상의 구조적인 부분을 어린이 생명으로 보았고 생명의 발현을 위한 교육을 전개한 것이다. 그러나 몬테소리는 그녀의 신앙배경과 어린이에 대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 형상의 방향성에 대한 왜곡과 인간 본성 타락에 대한 부분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구르트 헤벤슈트라이트(Sigurd Hebenstreit, 2005: 402)에 의하면 몬테소리는 “교육의 비밀은 사람 속에 있는 신적인 것을 인식하고 관찰하는데 있다. 즉 사람 속에 있는 신적인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에 봉사하되, 창조자의 위치가 아니라 피조물의 위치에서 돕고 함께 일하는데 있다. 우리는 신적인 작용에 힘을 더해야 하지만, 그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Sigurd Hebenstreit, 2005: 402).” 말했다고 증언한다. 이러한 몬테소리의 견해는 그녀 아동관의 신관과 자연사상에 대하여 잘 나타내 준다. 개혁주의 세계관적인 입장에서 몬테소리 아동관을 볼 때 그것은 진흙에 숨겨진 보석과 같다. 개혁주의 세계관은 보석을 날카롭게 다듬는 연장과 같은 것이고 개혁주의 세계관적인 세공작업을 통하여 몬테소리 아동관에서 우리는 기독교 유아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제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V 결론

몬테소리 교육에 대한 우리의 인식, 교육사상과 철학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몬테소리 교육적 배경이 다양한 것을 보면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몬테소리 교육은 이러한 다양한 범학문적(Interdisciplinary approach)인 배경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교육에 대한 방향성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몬테소리는 자신의 교육을 소개할 때 자신의 사상이나 이론에서 출발하지 않고 있다. 그녀는 교육을 어린이에게서 발견하였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전개하려고 하였다고 말한다(Sigurd Hebenstreit, 2005: 342). 몬테소리가 발견한 것은 어린이의 생명의 발현을 위한 교육이었다. 개혁주의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형상의 구조적인 부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몬테소리는 다양한 배경을 통하여 아동관을 정립하여서 유아 생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왜곡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것은 가톨릭의 구원관적 배경과 자연주의 사상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유아교육은 인간 중심의 사상이나 철학적 구조에 기초를 두지 않고 신적 기원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몬테소리 교육은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신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몬테소리 교육을 기독교 유아교육의 입장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안목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몬테소리 교육에 대한 피상적이고 부분적인 관심과 연구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적 안목으로 되는 연구가 필요하다. 통합적이라 함은 일반몬테소리와 몬테소리 신앙교육을 분리하여 다루는 이원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적인 부분에서 통합적 접근을 말한다. 창조된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말씀의 빛 안에서 모든 실재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실재를 구성할 수 있다(Albert E. Greene Jr, 1998: 133).

몬테소리 교육은 범위는 다양해서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폭 넓은 연구가 또한 필요하다. 유아의 발달에 대한 민감기, 평화교육과 우주론적 교육, 가톨릭 교회에 적용한 신앙교육, 교육방법과 영역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기독교 유아교육의 영역과 범위가 확장될 것이고 새로운 가능성과 개혁주의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기독교 유아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미 (2010). “몬테소리 교육학과를 통한 유아영성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 김영한 (2006). “기독교 세계관의 독특성”. 『기독교 철학』 3. 9-47.
- 박경희·이성숙 (2011). 『몬테소리 이론』. 경기도: 공동체.
- 서철원 (2010). 『인간, 하나님의 형상』.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 송인규 (2009).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 서울: IVP.
- 서석남 (1998). 『몬테소리 생명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 신국원 (2010).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 신화식 (1996). 『몬테소리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_____ (2003). 『몬테소리 유아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 _____ (2006). 『몬테소리 이론의 탐구』. 서울: 학지사.
- _____ (2007). 『개별화 교육을 위한 몬테소리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양정남 (2004). “한국에 있어서 몬테소리 교육사상의 발전과정과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원필선 (2009). “아동의 영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 유경상 (2010).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포스트모던 인간관 연구”. 『신앙과 학문』 15(3). 141-174.
- 유선희 (2009). “어린이 영성교육을 위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 이승구 (2009).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 이영미 (2009). “몬테소리 교육방법 관련 연구동향(1969-2008)”.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초혜 (2010). “유아를 위한 기독교 영성교육”.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 조성자 (2006). 『몬테소리 과학적 교육학』. 서울: 신정.
- 조성자 (2009). “몬테소리의 가톨릭시즘에 의한 어린이들을 위한 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 활동”. 『종교교육학연구』 30. 65-89.
- 조옥희·권영자 (2001). 『3, 4, 5세 유아를 위한 몬테소리 유아교육』.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정희영 (2002). “몬테소리 교육사상의 기독교적 조명”. 『총신대 논총』 21(1). 5-36.
- 차성욱 (2003). “몬테소리 종교교육사상의 기독교적 조명”.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 Albert E. Greene Jr (1998).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현은자 외2 역(2004).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서울: CUP.
- Albert M. Wolters, Micheal W. Goheen (2005). *Creation Regained*. 양성만·홍병룡 역 (2010). 『창조 타락 구속』. 서울: IVP.
- Anthony A. Hoekema (1990).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1993).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Gianna Gobbi (2000). *Listening to God with Children*. OH: Treehaus Communication, Inc.
- James W. Sire (2004). *The Universe Next Door*. 김현수 역(2010).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서울: IVP.
- Louis Berkhof (1974).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 이상원 역(1992). 『벌코프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M. Fakkema (1982). *Christian Philosophy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 황성철 역 (1988). 『기독교교육철학』.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 Rita Kramer (1988). *Maria Montessori A Biogra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bert L. Reymond (1998). *A New Systematic Theology of The Christian Faith*. 나용화 외3 공역(2004). 『최신 조직신학』. 서울: CLC.
- Sigurd Hebenstreit (1999). *Maria Montessori*. 이명아 역(2005). 『참교육자 마리아 몬테소리』. 서울: 문예출판사.